

투데이 칼럼

북한 김주애와 리설주

김 일성 주석 생일인 태양절에 김정은 위원장은 딸 주애와 함께 화성지구 준공식을 찾았다. 김주애가 김 위원장 현직 지도에 동행한 것이 처음은 아니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좀 다르다는 평가가 나왔다. 일각에서는 '영부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그동안 김주애의 반쯤은 올림피아와 성숙한 옷차림도 리설주를 떠올리게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런데 정작 리설주는 1년 4개월 넘게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과연 김주애가 '퍼스트레이디'를 대신하고 있는 걸까. 그렇다면 리설주는 대체 지금 어디서 무엇하고 있는 걸까. 최근 평양 화성지구 3단계 준공을 기념하는 축하 무대가 있었다. 김정은 위원장과 간부들이 앉은 단상엔 김주애도 함께 했다. 그러나 공연이 끝난 이후 행보는 평소와 조금 달랐다. 김정은 위원장이 주민들 사이로 들어가 '애민 행보'를 이어가자 뒤따르던 주애도 갑자기 환한 미소를 지으며 주민들에게 손을 내밀고 귓속말까지 건넨 것이다. 1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김주애가 일반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모습은 다소 이례적인 장면이다.



정복규
논설위원

실제로 김주애는 등장 초창기를 제외하고는 어머니 리설주를 연상케 하는 모습으로 공식 석상에 등장해 왔다. 최근엔 대부분 리설주 없이 단독으로 아버지 김 위원장과 동행하고 있다. 이러한 행보에서도 과거 리설주의 역할을 그대로 이어받은 듯한 인상을 준다. 이는 결국 그동안 리설주가 '퍼스트레이디'로서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해 온 것이 아니었느냐는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다. 1989년생으로 알려진 리설주는 북한 최고의 예술 영재 학교인 금성학원을 졸업한 뒤 은하수 관현악단에서 가수로 활동했다. 당시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도 단독 무대에 오를 만큼, 가수로서의 기량과 인기를 모두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물론 대중에게 알려진 가수 출신이었던 만큼 리설주의 첫 등장

은 북한 주민들에게 작지 않은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이후 빈번적인 공개 활동을 통해 점차 주민들 사이에서 영부인으로서의 입지를 다져갔다. 실제 리설주는 철저히 김씨 일가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 왔다. 선대 지도자에 대한 충성을 대외적으로 드러냈고, 주민들과의 직접 접촉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의 '애민 이미지' 형성에도 일조했다. 국제무대에서도 공개적이고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갔다. 2018년에는 김정은 위원장 없이 중국 예술단 공연을 단독으로 관覧하며 외교 활동에 나서기도 했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도 북한 퍼스트레이디로서의 역할을 침착하게 수행해 큰 주목을 받았다. 이후에도 리설주는 각종 기념일마다 김정은 위원장과 동행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코로나19 기간에는 주민들에게 장내성 감염 의약품을 기부하며 불안해하는 민심을 다독이기도 했다. 그러나 2022년 11월, 김주애의 등장을 기점으로 리설주의 역할과 노출 빈도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물론 등장 초기엔 김주애와 함께 모습을 드러내며 곁을 지키는 장면도 포착됐다. 하지만 2024년 1월 신년 경축 공연 이후, 리설주는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리설주의 잠행을 딸 김주애의 등장과 연결 지고 있다. 김주애가 후계 구도 중심에 서 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이러한 해석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다만 리설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녀의 위상이 급격히 하락한 것으로 단정해선 안 된다. 오히려 김주애의 뒤에서 조용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올해는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이라는 대규모 행사가 예정된 만큼, 그 시기를 전후해 리설주가 새로운 모습과 역할로 다시 등장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딸 주애의 등장과 함께 조용히 모습을 감춘 북한 퍼스트레이디 리설주. 그러나 리설주의 잠행이 단순한 퇴장이 아닌, 또 다른 등장을 위한 준비일 수도 있다.

사설

갈수록 인기 높은 주짓수

주짓수는 거친 운동이다. 상대를 직접 타격하지 않지만 관절을 꺾고 조르는 방식으로 상대를 제압한다. 몸을 많이 쓰는데다가 부상의 위험이 있기에 과격하다는 인식까지 있다. 그런데도 최근 갈수록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주짓수가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있는 무술로 널리 알려진 덕분에다. 특히 학교폭력 등 사회적 문제가 크기 때문에 중·고등학생은 물론 초등학생과 유치원생까지 크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 안양시 탄안구 안양동에 있는 주짓수 체육관의 경우 학교를 마친 아이들이 모여든다. 이곳에서 종합격투기(MMA) 대회 챔피언 출신 문재훈(40) 관장의 지도를 받는다. 아이들은 놀이 위주가 아닌 성인들처럼 기술 위주의 수업을 받는다. 문 관장은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몸을 방어해

야 하는지를 교육한다. 파트너와 스파링을 할 땐 정확하게 기술을 구사하도록 한다. 어린이들은 '공'하는 소리와 함께 넘어져도 재빨리 일어나서 상대에게 달려든다. '얼 어치기'와 암바(팔 가로누워 꺾기)가 장기간 어린이도 있다. 걱정과 달리 아이들이 다치지 않고 주짓수를 수련하면서 신체와 정신을 가꾸는 모습에 부모들은 호뭇해한다. 어른들과 달리 아이들은 주짓수를 할 때 크게 다치는 경우가 없다. 어른보다 유연하고 아직 상태를 다치게 할 힘이 없기에 안전하다. 무엇보다 체육관에서 배운 기술을 학교에서, 그리고 밖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한다. 주짓수는 일본의 유술이 브라질과 서구로 건너간 후 현지에서 자체 발전하여 정립된 무술이다. 주짓수라는 이름은 유술의 일본어 발음이 해위로 전파되면서 변형된 것이다.

제6회 선학평화상 시상식

'제6회 선학평화상 시상식'이 4월 11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 월드에서 개최됐다. '평화를 위한 혁신(Innovation for Peace)'을 주제로 열린 이번 시상식에서는 글로벌 위기와 도전에 창의적으로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한 리더들의 업적을 기렸다. 수상자는 그린벨트 운동(Green Belt Movement) 이사장 겸 세계자연연구소 아프리카 지역 이사 완지라 마타이(Wanjira Mathai)이다. 또한 글로벌 시티즌(Global Citizen) 대표 휴 에반스(Hugh Evans), 가나 아시시 대학교(Ashesi University) 총장 패트릭 아우아(Patrick Awuah) 등이 각각 환경 보호와 복원, 세계시민 연대 운동, 윤리적 교육 혁신 분야에서 탁월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완지라 마타이 여사는 세계자연연구소(WRI) 아프리카 총괄

디렉터로서 AFR100 이니셔티브를 이끌며 아프리카에서 1억 헥타르의 토지를 복원하고 있다. 그린벨트운동을 통해 5천 1백만 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는 등 환경 회복에 기여한 공로가 크게 인정되었다. 휴 에반스 대표는 글로벌 시티즌을 통해 전 세계 시민들의 연대를 촉진하여 490억 달러 이상의 재정적 지원을 이끌어내어 13억 명의 삶을 변화시켰다. 글로벌 시티즌은 디지털 행동주의를 통해 빈곤 퇴치 및 글로벌 정책 변화를 이끈 새로운 글로벌 시민운동의 혁신적 모델을 제시했다. 패트릭 아우아 총장은 윤리적 가치와 첨단기술 교육을 결합한 혁신적 커리큘럼으로 아프리카의 빈곤과 부패 등 구조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인재들을 양성한 공로가 높이 평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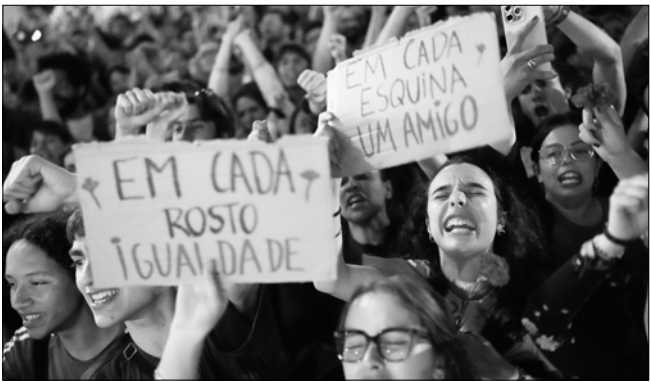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대통령님, 슬로바키아는 유럽입니다”



지난 24일(현지 시간)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의 대통령궁 앞에서 시위대가 “슬로바키아는 유럽이다”라는 이름의 시위를 벌이며 페테르 펠레그리니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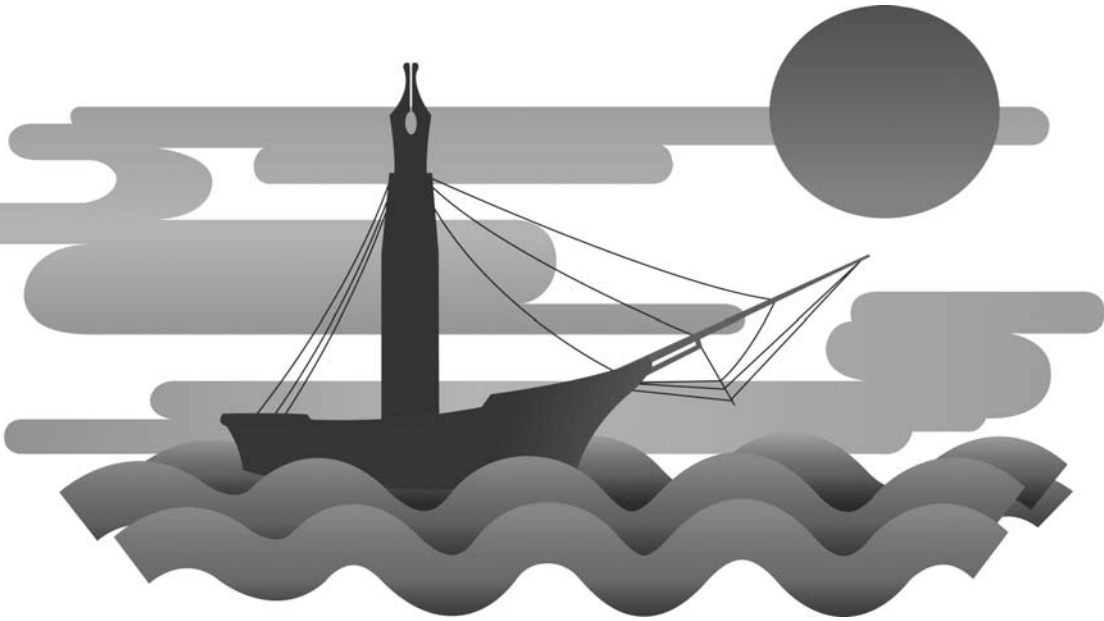
‘카네이션 혁명 51주년’ 혁명이 부르는 청년들



지난 25일(현지 시간) 포르투갈 리스본의 카르무 광장에서 열린 '카네이션 혁명' 51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이 혁명의 시작을 알렸던 노래 '그라운드라, 빌라 모레나' 가사가 적힌 팻말을 들고 노래하고 있다. 1974년 4월 25일 일어난 카네이션 혁명은 파시스트 독재로부터 포르투갈의 민주주의를 회복한 역사적인 사건이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